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권 4호 (2019년 12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한국 아동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	김원경, 권희경
주관적 인지저하 노인들의 기억의 긍정성 효과: 정상 노인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와의 비교	이현호, 강연욱
학령 후기 자녀가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 간의 관계에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와 및 모 심리적 통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설경옥, 장지혜, 신지윤, 하소정, 김서영
분노 정서조절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령차 및 개인차: 노인 집단과 대학생 집단 비교	강효신, 권정혜
성인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성형수용태도 종단연구	김현지, 이지현, 권혜중, 설경옥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심리적 통제와 청년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자녀의 자율성 욕구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이인영, 정영숙
청소년 성격평가질문지(PAI-A) 증보판의 요인구조: 일반 및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손현진, 박은영, 홍상황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지현, 양수진

한국발달심리학회

발행처 : 한국발달심리학회
발행인 : 송하나(성균관대학교)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93 진빌딩 2층
전 화 : 02-336-6672

인쇄일 : 2019년 12월 15일
발행일 : 2019년 12월 15일
제작처 : 책과공간
(02-725-9371)

편집위원장 :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편집위원 : 강연욱(한림대학교) 김기연(중앙대학교) 김혜리(충북대학교) 노수림(충남대학교)
서미정(제주대학교) 송주현(California State University) 송현주(연세대학교) 신희영(전북대학교)
유연옥(계명대학교) 최유정(Harvard University) 한세영(이화여자대학교)
Daniel Choe(UC Irvine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심사위원 : 강호신(경성대학교) 김근영(서강대학교) 김기연(중앙대학교) 김연수(전주대학교)
남미경(인간발달복지연구소) 서고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동기(한림대학교) 서미정(제주대학교)
설경옥(이화여자대학교) 설현수(중앙대학교) 성은현(호서대학교) 손은정(계명대학교)
양수진(이화여자대학교) 양재원(가톨릭대학교) 윤진영(세명대학교)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이종구(대구대학교) 장은영(호남대학교) 장혜인(성균관대학교) 장희순(용인대학교)
정윤경(가톨릭대학교) 조설애(부산대학교) 하정희(한양대학교) 한세영(이화여자대학교)
한소원(서울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발달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한국심리학회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독이 가능하다. 비회원의 구독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란다.

Vol. 32, No. 4

November 15, 2019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published quarterly-annually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annually and carries research articles based on empirical data & theoretical review. Subscription inquiries and manuscript submission should be directed to: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ditor : Seung-yeon Lee(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Yeonwook Kang(Hallym Univeristy) Giyeon Kim(Chung-Ang University)
Hei-Rhee Ghim(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o Rim Noh(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ijung Seo(Jeju National University) Ju-Hyun Song(California State University)
Hyun-joo Song(Yonsei University) Huiyoung Shin(Chonbuk National University)
Younoak Yu(Keimyung University) Youjung Choi(Harvard University)
Sae-Young Han(Ewha Womans University)
Daniel Choe(UC Irvine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32 권 제 4 호 / 2019. 12.

한국 아동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	김원경, 권희경 / 1
주관적 인지저하 노인들의 기억의 긍정성 효과: 정상 노인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와의 비교	이현호, 강연욱 / 21
학령 후기 자녀가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 간의 관계에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와 및 모 심리적 통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설경옥, 장지혜, 신지윤, 하소정, 김서영 / 43
분노 정서조절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령차 및 개인차: 노인 집단과 대학생 집단 비교	강효신, 권정혜 / 59
성인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성형수용태도 종단연구	김현지, 이지현, 권혜중, 설경옥 / 83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심리적 통제와 청년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자녀의 자율성 욕구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이인영, 정영숙 / 103
청소년 성격평가질문지(PAI-A) 증보판의 요인구조: 일반 및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손현진, 박은영, 홍상황 / 123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지현, 양수진 / 151

한국발달심리학회

학령 후기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 간의 관계: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 및 모 심리적 통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Received: October 15, 2019
Revised: November 13, 2019
Accepted: November 25, 2019

설경옥, 장지혜, 신지윤, 하소정, 김서영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교신저자: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03760) 심리학과 부교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523호

Perceived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Body Esteem: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Mother-Child Communication
Problems and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E-MAIL:
koseol@ewha.ac.kr

Kyoung Ok Seol, Jee Hye Chang, Ji Yun Shin, So Jung Ha, Seo You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 Copyright 2019.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 2저자와 3저자의 기여도 동일,
4저자와 5저자의 기여도 동일

ABSTRACT

본 연구는 학령 후기 아동의 신체자존감과 가정환경 변인, 어머니의 양육방법과 자녀와의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실시되었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를 매개로 아동의 신체자존감을 부적으로 예측할 것이며 모 심리적 통제가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아동의 신체자존감 간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초등학교 아동 195명(여 102명, 남 9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SPSS PROCESS를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부갈등과 아동의 신체자존감의 부적 관계를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가 부분 매개하였다. 이 때 모 심리적 통제는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아동의 신체자존감 간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 심리적 통제가 낮을 때 부부갈등과 아동의 신체자존감의 관계에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부적 매개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라는 가정환경 요인이 어머니와 자녀 간 의사소통 문제라는 매개변인에 의해 의을 설명하며, 심리적 통제와 같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방법에 따라 어머-자녀 간 의사소통 문제와 신체자존감의 관계가 더욱 부정적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주요어 : 학령 후기 아동, 신체자존감, 부부갈등, 모-자녀 의사소통, 모 심리적 통제

서 론

자존감은 자기개념의 정서적 영역으로 타인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긴다고 지각할 때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다(Leary & Downs, 1995). 자신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영역에 근거하고 평가 영역에 따라 학업 자존감, 사회 자존감, 정서 자존감 그리고 신체자존감 등으로 나뉜다(Shavelson, Hubner, & Stanton, 1976). 이 중 신체자존감은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자존감의 외모 영역이다(Mendelson, Mendelson, & White, 2001). 신체자존감은 가장 초기에 발달하는 자존감으로(Williams & Currie, 2000) 아동과 청소년의 전반적 자존감과 상관이 가장 강함에도 불구하고(Padin, Lerner, & Spiro, 1981; von Soest, Wichstrøm, & Kvaalem, 2016)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Nelson, Kling, Wangqvist, Frisén, & Syed, 2018). 에릭슨은 자아정체성을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여기는 느낌이라고 일컬었는데(Erickson, 1968) 이는 신체자존감이 가장 원초적인 자존감으로 다른 자존감 영역의 근간이 됨을 의미한다.

학령 후기/초기 청소년기는 신체 변화를 겪으며 신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의 외양을 신경 쓰기 시작하며(방경숙, 채선미, 김지영, 강현주, 2012) 신체에 대한 자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본 연구는 학령 후기 아동의 신체자존감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부부갈등이라는 가정환경 변인,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변인인 의사소통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 간 관계를 연구하고자 실시되었다.

부부갈등과 아동의 신체자존감의 관계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

아동의 신체자존감 발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전반적 자존감 발달에 대한 문헌을 통해 가정 환경의 중요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자존감은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달한다(김순규, 2012). 특히 가정은 아동이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사회적 장으로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haffer, Lucas, & Richters, 1999).

부부갈등은 아동의 전반적 발달, 특히 자존감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정환경 변인이다(Amato, 1986; Pawlak & Klein, 1997). 부부갈등이 잦을 때 아동은 불안해 하며 부모와 물리적 거리를 두는 철회 행동을 보였고 정서 영역과 신체 외모 영역에서 자기 표상에 부정적이었다(Silva, Calheiros, & Carvalho, 2016). 국내 연구에서도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 자존감 및 신체외모 자아상 사이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박영림, 최해림, 2002).

가족 스트레스 모형에 따라 부부갈등이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을 예측하는 기제를 보면, 부부의 문제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가능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부모-자녀 간의 갈등도 증가하여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Conger et al., 2002). 이처럼 부부갈등은 부부갈등의 영향을 받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변인을 거쳐 아동의 신체자존감을 간접적으로 예측할 것이다(Siffert, Schwarz, & Stutz, 2012).

부부 간 갈등이 있을 때 부모는 자녀에게 부정적이고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고 부모와 자녀 간 대화 빈도는 감소하였다(Grych & Fincham, 1990). 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자녀는 어머니

가 덜 반응적이라고 지각했으며,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껴서 양육에 대한 효능감은 떨어지고 그 결과 갈등 상황에서 어머니와 자녀 간 의사소통의 질이 좋지 않았다(Sturge-Apple, Gondoli, Bonds, & Salem, 2003).

아동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는다(Dix, 1991).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아동은 자신이 부모에게 이해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지각하여 자존감이 높아졌다(Cava, Buelga, & Musitu, 2014). 반면 아동이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부모로부터 수용 받기보다 비난받는다 고 지각할 경우 아동의 자존감은 낮아졌다(장해순, 강태완, 2005).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전반적 자존감뿐 아니라 아동의 신체자존감과도 관련이 있다.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은 가족 구성원끼리 유대가 돈독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질 때 긍정적인 신체상과 높은 자존감을 보고하였다(방경숙 등, 2012). 미국 청소년 대상 연구에 따르면 부모에게 자신의 문제를 말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아동은 높은 신체 불만족과 낮은 자존감을 보고하였다(Ackard, Neumark-Sztainer, Story, & Perry, 2006).

모 심리적 통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사고, 자기표현, 정서, 애착 관계와 같은 심리,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부정적 양육방식이다(Barber & Harmon, 2002). 심리적 통제를 행사하는 부모는 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필요를 무시하고 자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애정을 철회하는 등의 심리적 위협을 가하고 아동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 표현

을 억누른다(Barber, 1996). 심리적 통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모와 부를 구분하지 않고 실시되었으나, 아동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Barber, Bean, & Erickson, 200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보다 아동의 전반적 자존감을 더 잘 예측하였다(우미경, 박영신,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만을 연구하였다.

모-자녀 의사소통이 어머니와 아동이 주체가 되는 상호작용 변인이라면 심리적 통제는 어머니가 주체가 되어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아동의 신체자존감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양육행동과 신체자존감에 관한 문헌은 전반적 자존감 문헌과 차이가 있다. 7-12세 아동 대상 연구에 의하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반응적 양육행동은 전반적 자존감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신체자존감은 예측하지 못하였다(Taylor, Wilson, Slater, & Mohr, 2012).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온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신체자존감을 예측하지 못하였다(Markham, Thompson, & Bowling, 2005). 그러나 다른 대학생 대상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여대생의 신체자존감을 유의하게 부적적으로 예측하였다(Sira & White, 2010). 이와 같이 양육행동과 신체자존감의 비일관적인 관계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신체자존감을 예측하는 조절변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반적 자존감과 양육행동 문헌에 따르면 모 심리적 통제는 아동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여 자신감을 잃게 하고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발달을 방해한다(추상엽, 임성문, 2008; Steinberg, 1990). 또한 Spillover 가설(Erel & Burman, 1995)에 따르면 부부갈등에서 생긴 부정정서가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주어 양육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부부관계의 질은 양육행동을 거쳐 아동의 자존감에 부정적일 수 있다(Siffert, Schwarz, & Stutz, 2012). 정리하자면 모 심리적 통제는 부부갈등과 아동의 신체자존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 심리적 통제가 모-자녀 의사소통과 신체자존감의 관계를 조절하는 연구모형을 검증하였고, 동시에 모 심리적 통제가 매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쟁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가설

본 연구는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의 관계를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가 매개하고, 모 심리적 통제가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신체자존감의 부적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라 모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신체자존감의 부적 관계의 강도가 강할 것으로 예상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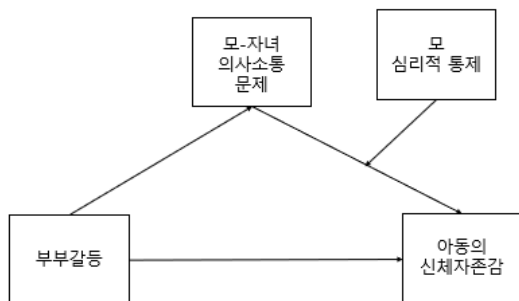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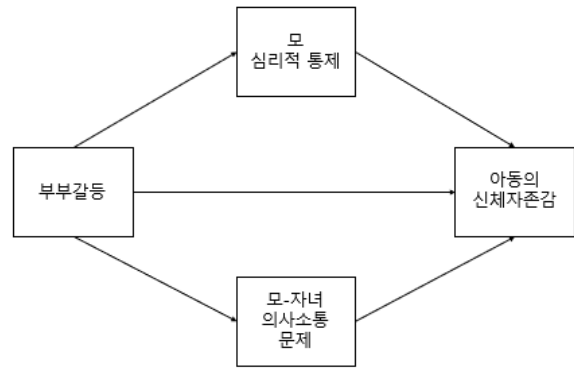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모 심리적 통제를 조절 변수로 한 조절된 매개모형이며(그림 1), 경쟁모형으로 부부갈등이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 그리고 모 심리적 통제 각각을 매개로 아동의 신체자존감을 예측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그림 2).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195명(여 102명, 남 93명)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문제, 그리고 아동의 신체자존감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고 응답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15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아동의 평균 연령은 11.54($SD=.05$)였고,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1.58($SD=3.28$)이었다. 어머니의 결혼상태는 결혼 114명(75%), 별거 4명(2.6%), 이혼 2명(1.3%), 남편 사별 2명(1.3%), 무응답 30명(19.7%)이었다.

측정도구

부부갈등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Grych, Seid와 Fincham(1992)이 개발하고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번안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부부갈등 척도(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여부, 위협 등 8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아동이 부부갈등에 자주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부부갈등 빈도 하위척도 6문항만을 사용하였다(예: 나는 부모님이 다투시는 것을 자주 본다).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빈번함을 의미한다.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모 심리적 통제

모 심리적 통제는 Barber(1996)와 Silk, Morris, Kanaya와 Steinberg(2003)가 개발하고 Wang, Pomerantz와 Chen(2007)이 18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설경옥, 경예나와 박지은(2015)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수정한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행동에 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예: 엄마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나에게 차갑게 대하신다).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모 심리적 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경옥 등(2015)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는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하고 민하영(1992)이 한국어로 번안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의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두 하위 영역에 각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상호작용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문제형 의사소통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예: 나는 엄마께 하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모와의 의사소통 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민하영(1992)이 남자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아동의 신체자존감

아동이 보고한 신체와 외모에 대한 태도 및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과 성인 대상으로 개발된 Mendelson과 White(1993)의 신체자존감 척도(The Revised Body-Esteem Scale)를 설경옥, 박선영과 박지은(2016)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가지 하위요인인 외모 신체자존감(예: 나는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맘에 든다), 체중 신체자존감(예: 나는 내가 더 날씬했으면 좋겠다), 타인평가귀인 신체자존감(예: 나는 남들에게 내 외모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걱정된다)으로 구성된 20문항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Likert식 3점 척

도로 평정하였다(1=전혀 아니다, 2=보통이다, 3=매우 그렇다). 외모와 체중 및 신체상에 불만족을 나타내는 문항들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높은 신체자존감을 나타낸다. 성인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경옥 등(2016)의 연구에서 외모 신체자존감과 체중 신체자존감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25.0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SPSS의 PROCESS (ver.3.2.01)(Hayes, 2013)를 이용하여 다음의 절차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를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통해 검증하고 기술통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의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셋째, 부부갈등과 아동의 신체자존감 간의 관계에 대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가 모 심리적 통제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James와 Brett(1984)의 제안에 따라 단계적 접근법을 실시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

다. 먼저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의 관계가 모 심리적 통제 수준에 따라 변화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신체자존감에 대한 부부갈등의 주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매개된 조절모형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조절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가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모 심리적 통제 투입에 따른 매개효과의 변화, 즉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과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부부갈등은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강한 정적 상관($r=.53, p<.01$)을 그리고 아동의 신체자존감과는 부적 상관($r=-.39, p<.01$)을 나타냈다.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는 아동의 신체자존감과 부적 상관($r=-.49, p<.01$)을 그리고 모 심리적 통제와 강한 정적 상관($r=.54, p<.01$)을 보였다. 모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152$)

변인	1	2	3	4
1. 부부갈등	-			
2.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	.53**	-		
3. 모 심리적 통제	.25**	.54**	-	
4. 아동의 신체자존감	-.39**	-.49**	-.21**	-
평균(M)	12.58	25.32	49.3	44.65
표준편차(SD)	5.16	8.25	13.87	7.10

** $p<.01$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신체자존감과 약하지만 유의한 부적 상관($r = -.21, p < .01$)을 보였다.

부부갈등과 아동의 신체자존감 간의 관계에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 사이에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표 2) 부부갈등은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를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고($B = .53, p < .001$),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는 아동의 신체자존감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하였다($B = -.38, p < .001$).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재추출한 표본 수 5,000개로 부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 계수는 $-.28$ 이었다. 95%

신뢰구간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434, -.156$ 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Preacher & Hayes, 2004).

모 심리적 통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을 모-자녀 의사소통이 매개하는 모형에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가 신체자존감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모 심리적 통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각 경로 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부부갈등은 신체자존감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했고($t = -2.69, p < .05$), 모-자 의사소통 문제는 신체자존감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했으

표 2. 부부갈등과 아동의 신체자존감의 관계에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 분석

	종속변수 : 아동의 신체자존감			종속변수 :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		
	<i>B</i>	<i>SE</i>	<i>t</i>	<i>B</i>	<i>SE</i>	<i>t</i>
부부갈등	-.20	.08	-2.56*	.53	.07	8.12***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	-.38	.08	-4.77***			

* $p < .05$, *** $p < .001$

표 3.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종속변수 :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			종속변수 : 아동의 신체자존감		
	<i>B</i>	<i>SE</i>	<i>t</i>	<i>B</i>	<i>SE</i>	<i>t</i>
상수	-.00	.07	-.07	-.11	.08	-1.39
부부갈등	.53	.07	7.87***	-.22	.08	-2.69**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				-.46	.10	-4.73***
모 심리적 통제				.07	.08	.80
의사소통 문제 × 심리적 통제				.18	.07	2.4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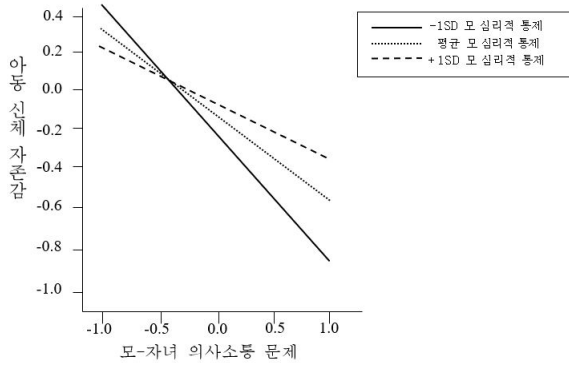


그림 3.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아동의 신체자존감의 관계에 대한 모 심리적 통제의 조절효과

며($t=-4.73, p<.001$),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모 심리적 통제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했다($t=2.43, p<.01$). 모 심리적 통제의 조절효과가 어떤 값에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신체자존감의 관계는 모 심리적 통제의 수준이 $+1SD$ 일 때($t=-2.52, p<.05$), 평균일 때($t=-4.72, p<.001$), $-1SD$ 일 때($t=-4.86, p<.001$) 모두 유의하였으나, 모 심리적 통제가 낮을수록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아동의 신체자존감의 부적 관계의 강도가 강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조건부 간접효과에 대해 부스트래핑 검정을 실행한 결과,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는 $.09(SE=.04)$ 로 95% 부스트래핑 신뢰구간(.020, .183)은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모 심리적 통제 수준에 따른 조절된 매개 효과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부스트래핑 검정을 진행하였다. 모 심리적 통제 $-1SD$ 수준과 평균, $+1SD$ 수준에서 모두 부스트래핑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를 매개로 부부갈등이 아동의 신체자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간접효과는 모 심리적 통제 수준이 낮을수록 그 강도가 강해지는 양상을 보였다($-1SD=-.34, M=-.24, +1SD=-.15$).

경쟁모형 검증

부부갈등이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 그리고 모 심리적 통제 각각을 매개로 신체자존감을 예측하는 경쟁모형을 검증한 결과, 부부갈등은 아동의 신체자존감을 유의하게 부적으로($B=-.21, p<.05$) 그리고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를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고($B=.53, p<.01$)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는 아동의 신체자존감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하였다($B=-.42, p<.001$). 부부갈등은 모 심리적 통제를

표 4. 조건부 간접효과 검증

모 심리적 통제	조절변수의 각 수준별 조건부 간접효과			
	Boot 간접효과	Boot 표준오차	Boot LLCI	Boot ULCI
$-1SD$	-.34	.09	-.53	-.17
M	-.24	.07	-.38	-.12
$+1SD$	-.15	.06	-.28	-.03

주. Boot LLCI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 값, Boot ULCI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 값

논 의

본 연구는 자아정체성 형성의 주요 발달과업이 시작되는 학령 후기/초기 청소년기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정체성의 정서적 영역인 자존감, 그중에서 신체자존감과 관련이 있는 가정 환경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 변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를 매개로 아동의 신체자존감을 부적으로 예측하며 모 심리적 통제가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아동의 신체자존감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부부갈등이 모 심리적 통제와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여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경쟁모형으로 부부갈등이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 그리고 모 심리적 통제 각각을 매개로 아동의 신체자존감을 예측하는 모형 또한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경쟁모형은 기각되었고 연구모형이 최종 모형으로 선택되었다. 구체적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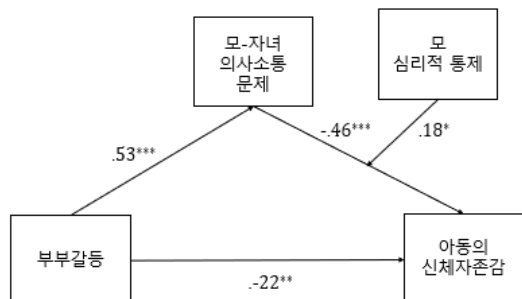


그림 4. 연구모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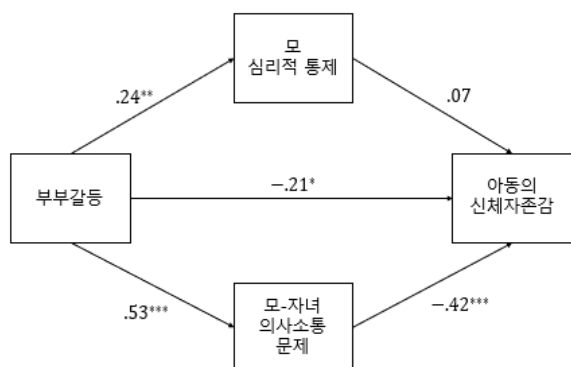


그림 5. 경쟁모형 결과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지만($B = .24, p < .01$), 모 심리적 통제는 신체자존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그림 5).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재추출 표본 수 5,000개의 부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616, -.228$ 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 간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모 심리적 통제의 매개효과는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신뢰구간($-.091, .238$)에 0이 포함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쟁모형은 기각하고 연구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부부갈등과 아동의 신체자존감 간의 관계를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신체자존감은 낮았는데, 이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자존감이 부적 관계가 있다는 Amato (1986)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자존감이 아닌 신체자존감을 연구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신체자존감이 전반적 자존감의 한 영역이고 두 변인이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가 심할수록 아동의 신체자존감이 낮았는데 이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아동이 높은 신체 불만족과 낮은 자존감을 보고했다

는 선행연구(Ackard et al., 2006)와 일치한다. 종합하자면 부부갈등이라는 스트레스 환경이 아동의 신체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부부갈등의 당사자인 어머니가 스트레스로 인해 아동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할 때 아동의 신체자존감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대로 부부갈등이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를 매개로 아동의 신체자존감을 예측할 때 모 심리적 통제가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신체자존감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는 모 심리적 통제의 수준이 +1SD 일 때, 평균 일 때, -1SD 일 때 모두 유의했다. 그러나 모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신체자존감의 관계가 더 부정적일 것이라는 가설과는 달리,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아동의 신체자존감의 관계는 모 심리적 통제가 낮을수록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가설과는 다르게 모 심리적 통제가 -1SD일 때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신체자존감의 관계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절효과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모 심리적 통제가 평균과 1SD 수준 모두에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신체자존감의 관계를 상승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의 관계를 모-자녀 의사소통문제가 매개하였다. 이 때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양육방법이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아동의 신체자존감의 관계를 조절하였는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약할수록(-1SD)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와 아동의 신체자존감의 부적관계는 더욱 강해졌다.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 때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의 관계에서 모-자 의사소통 문제의 매

개효과 크기가 더 작았다고 해서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방식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모-자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심리적 통제는 대표적인 부정적 양육방식으로,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은 부모와 단절감을 느끼고(이미진, 김지신, 조희원, 2018)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도록 돕는 정서조절능력도 손상된다(김유리, 김희정, 2013). 둘째, 다른 가능성으로 심리적 통제는 낮지만 어머니와 의사소통 문제가 많은 경우 상반된 메시지가 아동에게 혼란을 일으켜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동과 부모의 의사소통이 개방형으로 긍정적이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 때 자녀의 자기효능감은 더 낮았다(Givertz & Segrin, 2014). 끝으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가 많고 모 심리적 통제가 낮은 경우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부재하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관여하지 않는 ‘방임’의 상태를 반영하여 신체자존감이 더 낮아진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자아정체성 발달이 시작되는 학령 후기/초기 청소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자존감의 가장 원초적 형태인 신체자존감을 연구한 것이다(Erickson, 1968). 그동안 부모-자녀 관계와 신체자존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성인 초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회상 연구이거나 아동, 청소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의 섭식장애에 대한 병리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Fuemmeler et al., 2012).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자존감은 주로 체중과 관련되어 연구되어 왔다(Blashill & Wilhelm, 2014; Tremblay, Zecevic & Larivière, 2011). 신체자존감(Mendelson, Mendelson, & White,

2001)은 자존감 하위 영역들 중 가장 먼저 발달할 뿐만 아니라 이후 자존감 및 자아정체성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Nelson et al., 2018) 신체자존감을 예측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나, 본 연구는 아동의 신체자존감을 가정환경과 모-자녀 관계로 설명한 의의가 있다.

자존감의 초기 형태이자 이후 청소년기, 성인기의 전반적 자존감에 큰 영향을 주는 신체자존감(DuBois, Tevendale, Burk-Braxton, Swenson, & Hardesty, 2000; Lerner, Iwawaki, Chihara, & Sorell, 1980; Tiggemann, 2005)과 가정환경 변인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변인에 대한 연구는 아동양육과 상담 개입에 실제적인 함의가 있다. 부부갈등은 어머니와 아동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인 의사소통 문제를 일으켜 아동의 신체자존감을 낮추기도 했으나 부부갈등 자체도 아동의 낮은 자존감을 예측하였다. 부부갈등은 당사자인 어머니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인 아동에게도 스트레스가 되고 아동이 갈등 상황을 내재화하여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부부갈등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갈등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아동에게 부모는 그 스트레스를 전가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설명, 아동의 욕구에 더 민감한 양육방법과 의사소통으로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관연구이자 횡단 연구로 부부갈등과 아동의 신체자존감 간의 방향성 및 발달궤적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학령 후기는 다양한 발달 영역을 비롯하여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따라서 부부갈등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종단적으로 아동의 신체자존감 발달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대상의 한정성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의 아동과 그 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이 대표성을 갖도록 표집하여 연구 결과를 반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검증한 경쟁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형이므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경쟁모형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대해 아동보고만을 사용하였다.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개인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심한 경우 아동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정서적 학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으나(Donovan & Brassard, 2011), 동양 문화권의 아동은 부모의 통제를 사랑으로 해석하여 서구 문화권 아동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덜 받았다(Pomerantz & Wang, 2009). 부부갈등 또한 아동 보고로 측정하여 실제적인 부부의 갈등 수준과 불일치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 보고를 포함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영옥, 이정덕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김순규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6), 109-128.
- 김유리, 김희정 (201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단절의 관계. **상담학연구**,

- 14(5), 3041-3064.
- 민하영 (1992).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1), 112-124.
- 박영림, 최해림 (200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모 애착, 부부갈등 지각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741-755.
- 방경숙, 채선미, 김지영, 강현주 (2012).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과 자존감, 가족건강성.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5(1), 33-38.
- 설경옥, 경예나, 박지은 (2015).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양육행동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1), 109-131.
- 설경옥, 박선영, 박지은 (2016). 성인기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비교와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875-896.
- 우미경, 박영신 (2012). 초등학교 아동들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통제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157-174.
- 이미진, 김지신, 조희원 (2018).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학교 적응과의 관계: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 469-480.
- 장해순, 강태완 (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3(2), 104-130.
- 추상엽, 임성문 (2008).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5(7), 347-368.
- Ackard, D. M., Neumark-Sztainer, D., Story, M., & Perry, C. (2006). Parent-child connectedness and behavioral and emotional health among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0(1), 59-66.
- Amato, P. R. (1986). Marital conflict,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child self-esteem. *Family Relation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35(3), 403-410.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Bean, R. L., & Erickson, L. D. (2002). Expanding the study and understanding of psychological control. In B. K. Barber (Eds.),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ce* (pp. 263-28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arber, B. K. (Eds.),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In D. H. Olson, McCubbin, H.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

- (Eds.), *Family inventories: Inventorie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pp. 33-48).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lashill, A. J., & Wilhelm, S. (2014). Body image distortions, weight, and depression in adolescent boys: Longitudinal trajectories into adulthood.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5*(4), 445-451.
- Cava, M. J., Buelga, S., & Musitu, G. (2014). Parental communica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ce.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17*, 192-200.
- Conger, R. D., Wallace, L. E., Sun, Y., Simons, R. L., McLoyd, V. C., & Brody, G. H. (2002). Economic pressur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2), 179-193.
- Dix, T. (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Adaptive and maladaptiv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3-25.
- Donovan, K. L., & Brassard, M. R. (2011). Trajectories of maternal verbal aggression across the middle school years: Associations with negative view of self and social problems. *Child Abuse & Neglect, 35*(10), 814-830.
- DuBois, D. L., Tevendale, H. D., Burk-Braxton, C., Swenson, L. P., & Hardesty, J. L. (2000). Self-system influences during early adolescence: Investigation of an integrative model.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1), 12-43.
- Erel, O., & Burman, B. (1995).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1), 108-132.
- Erikson, E. (1968). *Youth: Identity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Fuemmeler, B. F., Yang, C., Costanzo, P., Hoyle, R. H., Siegler, I. C., Williams, R. B., & Østbye, T. (2012). Parenting styles and body mass index trajectories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Health Psychology, 31*(4), 441-449.
- Givertz, M., & Segrin, C. (2014). The association between overinvolved parenting and young adults' self-efficacy, psychological entitlement, and family communication. *Communication Research, 41*(8), 1111-1136.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2), 267-290.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3), 558-572.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James, L. R., & Brett, J. M. (1984). Mediators, moderators, and tests for medi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9*, 307-321.
- Leary, M. R., & Downs, D. L. (1995). Interpersonal functions of the self-esteem motive: The self-esteem system as a sociometer. In Kernis, M. H. (Eds.),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 (pp. 123-144). New York: Plenum Press.
- Lerner, R. M., Iwawaki, S., Chihara, T., & Sorell, G. T. (1980). Self-concept, self-esteem, and body attitudes among Japanese male and female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1*(3), 847-855.
- Markham, A., Thompson, T., & Bowling, A. (2005). Determinants of body-image sham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7), 1529-1541.
- Mendelson, B. K., Mendelson, M. J., & White, D. R. (2001). Body-esteem scale for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6*(1), 90-106.
- Mendelson, B. K., & White, D. R. (1993). Manual for the body-esteem scale for children. *Concordia University Research Bulletin, 12*(2), 1-10.
- Nelson, S. C., Kling, J., Wängqvist, M., Frisén, A., & Syed, M. (2018). Identity and the body: Trajectories of body esteem from adolescence to emergi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54*(6), 1159-1171.
- Padin, M. A., Lerner, R. M., & Spiro, A. (1981). Stability of body attitudes and self-esteem in late adolescents. *Adolescence, 16*(62), 371-384.
- Pawlak, J. L., & Klein H. A. (1997). Parental conflict and self-esteem: The rest of the story.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8*(3), 303-313.
- Pomerantz, E. M., & Wang, Q. (2009). The role of parental control in children's development in Western and East Asian countri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5), 285-289.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Shaffer, D., Lucas, C. P., & Richters, J. E. (1999). *Diagnostic assessment i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New York: Guilford Press.
- Shavelson, R. J., Hubner, J. J., & Stanton, G. C. (1976). Self-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3), 407-441.
- Siffert, A., Schwarz, B., & Stutz, M. (2012). Marital conflict and early adolescents' self-evaluation: The role of parenting quality and early adolescents' appraisa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6),

- 749-763.
- Silk, J. S., Morris, A. S., Kanaya, T., & Steinberg, L. (2003). Psychological control and autonomy granting: Opposite ends of a continuum or distinct construc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 113-128.
- Silva, C. S., Calheiros, M. M., & Carvalho, H. (2016). Interparental conflict and adolescents' self-representations: The role of emotional insecurity. *Journal of Adolescence, 52*, 76-88.
- Sira, N., & White, C. P. (2010). Individual and familial correlates of body satisfaction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8*(6), 507-514.
- Steinberg, L. (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In Feldman, S. S., & Elliot, G. R.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255-27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turge-Apple, M. L., Gondoli, D. M., Bonds, D. D., & Salem, L. N. (2003). Mothers' responsive parenting practices and psychological experience of parenting as medi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mother- preadolescent relational negativity.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3*(4), 327-355.
- Taylor, A., Wilson, C., Slater, A., & Mohr, P. (2012). Self esteem and body dissatisfaction in young children: Associations with weight and perceived parenting style. *Clinical Psychologist, 16*(1), 25-35.
- Tiggemann, M. (2005). Body dissatisfaction and adolescent self-esteem: Prospective findings. *Body Image, 2*(2), 129-135.
- Tremblay, L., Lovsin, T., Zecevic, C., & Larivière, M. (2011). Perceptions of self in 3-5-year-old children: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to the early emergence of body dissatisfaction. *Body Image, 8*(3), 287-292.
- von Soest, T., Wichstrøm, L., & Kvalem, I. L. (2016). The development of global and domain-specific self-esteem from age 13 to 31.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0*(4), 592-608.
- Wang, Q., Pomerantz, E. M., & Chen, H. (2007). The role of parents' control in early adolescents' psychologic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hild Development, 78*(5), 1592-1610.
- Williams, J. M., & Currie, C. (2000). Self-esteem and physical development in early adolescence: Pubertal timing and body imag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2), 129-149.

Perceived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Body Esteem: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Mother-Child Communication Problems and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Kyoung Ok Seol Jee Hye Chang Ji Yun Shin So Jung Ha Seo You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mother-child communication problem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marital conflict and body esteem among children in late childhood. A total sample of 195 5-6th grade children (102 girls) completed a survey, showing that perceived marital conflict wa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children's body esteem. Mother-child communication problems partially mediated this link. This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marital conflict on body esteem through mother-child communication problems was moderated by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The children who perceived less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were more likely to have low body esteem when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mothers occurred more frequently. Our findings imply that marital conflict might lead to problematic communication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and that children might internalize negative messages that they received when they evaluate their self-image. Moreover, mothers' maladaptive parenting may exacerbate the link between problematic communication and children's body esteem.

Keywords: late childhood, body esteem, marital conflict, mother-child communication, psychological controlling